



特殊學校 私教育費 支出實態와
節減方策에 관한 研究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吳 世 景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李 泰 鍾


2004年 8月

016403

吳世景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이태경 

審査委員 정현주 

審査委員 심희영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年 8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와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특수교육의 이념과 대상	5
2. 특수교육기관과 교육과정	10
3. 특수교육재정 및 사교육비	22
4. 선행연구의 고찰	27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30
1. 분석모형	30
2. 조사설계	31
IV. 분석 결과 및 해석	34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4
2.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	35
3.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	41
4. 사교육비 지출 실태	47
5. 사교육의 효과	56
6.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60
7. 종합적 논의	71

V. 결론 및 제언	75
1. 요약	75
2. 결론 및 제언	77
참 고 문 헌	80
ABSTRACT	82
부록(설문지)	89

<표 IV-12> 학습관련 학원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49
<표 IV-13>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	50
<표 IV-14> 사교육비 총액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52
<표 IV-15>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적정성 정도 ...	53
<표 IV-16> 다른 가정 학생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55
<표 IV-17>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장애상태 개선 효과	56
<표 IV-18>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진로결정에의 영향 정도	58
<표 IV-1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59
<표 IV-20>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희망 교육영역	61
<표 IV-21>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62
<표 IV-22>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	64
<표 IV-23>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65
<표 IV-24>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67
<표 IV-25>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비	69
<표 IV-26>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70

그 립 목 차

<그림 III-1> 분석모형	31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학생들도 일반 교과교육, 예·체능, 과학, 치료교육 등 특수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가계비 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와 법령정비, 사회적 인식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적고 교육비가 많이 들며 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우선 순위가 뒤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제한속에서 아무리 이상적인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육 재정에 대한 합리적 투자 배분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특수교육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의 배분 기준은 평등성의 실현, 공정성의 보장 및 효율성의 증대로 구분할 수 있다.¹⁾ 평등성의 실현이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동등하다는 원칙을 재정상으로 보장하고 실현시키려는

1) 김영철·공은배, 교육경제와 재정(서울: 교학사, 1988), p.408.

의도이다. 교육재정의 공정성이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재정 배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기준이란 교육의 내·외적 요인을 말하나 교육의 외적 요인은 제외하고 교육의 내적 요인만 고려한다면 대개 개인의 능력, 교육 환경의 차이, 학교 급별, 교육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 등을 들 수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히 개인의 능력이란 측면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강조하게 된다. Rossmiller 등²⁾에 의하면 정상아동 1인당 교육비에 비해 교육가능정박, 훈련가능정박, 청각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아들의 교육비는 각각 1.87, 2.10, 2.99, 2.97, 3.64, 1.18배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한 배분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다만 정봉도³⁾가 특수교육의 영역별로 적정단위 교육비의 추정 차이를 낸 것에 의하면 교육가능정박, 훈련가능정박, 청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의 교육비는 정상아동 1인당 교육비의 2.53, 6.97, 7.57, 8.26, 7.47배로 제시했다. 교육재정 배분의 효율성이란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바람직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의 측정은 투입과 산출의 정확한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극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배분에 효율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공교육이 부담해야 할 분야를 공교육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그 책임

2) Rossmiller, R. A. et al., *Educational Programs for Exceptional Children*(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70).

3) 정봉도, 「특수교육의 적정단위교육비 추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1986), p.62.

을 분담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큰 저항 없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 하에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또한 일반교육에 비해 2~3배 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특수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충분한 교육적 효과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의존도는 가중될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 또한 점점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과 장애 상태 개선을 위하여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절감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항목별 교육비의 지출 정도를 분석한다.

둘째,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 및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받는 일반 교과교육과 예·체능, 과학, 치료교육 등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학교 사교육비이며, 서울, 대구 및 경주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각 지역 소재 3개 특수학교(정진학교, 남양학교, 경희학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특수학교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질문지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개선점을 밝힘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의 이념과 대상

1) 특수교육의 이념

(1)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은 심신의 어떠한 장애가 있는 까닭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아동, 교육상 특별한 지도를 요하는 아동에 대해서 그 특성 그리고 필요에 따른 좋은 교육적 환경을 주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하며, 적응 능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준비된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한 분야이다.

즉 특수교육은 일반아동의 지도, 계획, 방법에 의해서는 문제 해결이 곤란한 아동으로 그들의 요구에 알맞게 하고 국가사회의 책임아래 보다 나은 환경을 부여하고 보다 나은 학습을 익히게 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목표하고 건강하면서도 유용,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배양하는 활동⁴⁾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특수교육의 이념

특수교육을 논할 때 인간관을 생각하는 것은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인간관은 모든 인간의 문제와 행위의 근원이며 특수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개개인은 하나의 전체상이고 한 개의 전체로 보아야 한다. 장애아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인격을 그 능력에 맞게 살아가

4) 이태영, 최신 특수교육원리(대구: 한사대학 특수교육연구소, 1980), p.18.

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를 하나의 특수집단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먼저 한 사람의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심신 장애아 교육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교육을 생각하고 추진하려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 뜻은 지능면, 정서면, 신체면의 종합적인 인간 형성을 토대로 본질적인 개개인간을 이해하고 그 존엄성과 교육에 대한 양심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인간존중 사상을 토대로 한 평등주의, 문화주의, 인도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인간평등의 원칙에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성의 계발신장과 사회에의 바람직한 참여로써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살리는데 그 이념을 두어야 할 것이다.⁵⁾

2) 특수교육의 목적⁶⁾

일반교육이나 특수교육의 목적은 그 근본 이념적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내면에 있는 소질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계발시켜주는데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은 교육기관이나 교육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체화되어 진다.

우리의 교육법 제143조에서 특수학교의 교육목적을 “특수학교는 장애인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그 실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

5) 상계서, p.20.

6) 최종옥 외,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 이론과 실제(서울: 교육과학사, 2000), pp.2-3.

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① 우선 바람직한 집단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성격의 특이성을 교정하여 원만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고 ②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육성하며 ③ 직업적 기능과 태도를 기르며 ④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함을 보충·수정하며 ⑤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것 등에 그 목표를 둘 수 있다.

즉,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심신이 건강하여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권의 보장⁷⁾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장애아동의 장애극복과 보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유치부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질적인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7) 상계서, pp.3-4.

그러나 오늘날 특수교육의 방향에서 통합교육을 결부시켜 보면 의무교육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어진다. 즉, 현재 일반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교육만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분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교육과의 통합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결국에는 분리교육을 다시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학습이나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아동에게 국가가 자발적으로 우선하여 교육권의 배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진정한 교육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특수학교만을 분리하여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의 모든 틀 속에서 특수교육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은 비록 심신의 장애를 지닌 아동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발달의지와 자신과 주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교육의 보편성과 아동 각자의 장애를 개선·극복시켜주어야 한다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각국의 헌법에 명문화되고 또한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자유 방임시대에는 경제독점과 함께 특정 계층에서만 ‘권리로서의 교육’이 부여되었을 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공교육의 사상이 성립되었고 이는 자녀의 권리 실현이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의무로서의 취학제도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진보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미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당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게 되었다.(헌법 제31조 제6항).

4) 특수교육 대상⁸⁾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아동이란 유네스코에서는 “신체적, 지적 또는 행동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 연령 집단의 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아동으로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장애별 교육대상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증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진단·평가된 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수아동을 선정하는 진단·평가 심사기준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

장애영역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 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8) 상계서, pp.4-6.

장애영역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기준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가.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 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 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2. 특수교육기관과 교육과정

1) 특수교육기관⁹⁾

특수교육기관의 유형은 제공되는 교육장면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의 통합교육, 재택 순회교육 등 다양하다. 1994년 1월에 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특수기관의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유치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의 순회교육, 통합교육의 규정까지 포함한다면 특수교육기관은 종전과 달리 특수학교, 특수유치원, 특수학급만이 아닌 일반학급, 병원, 가정 및 복지시설 등까지 교육실시의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의미가 달라지며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9) 상계서, pp.6-8.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장면을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법 제144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특수학급은 교육법 제145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를 각각 들 수 있다. 우선 특수학교는 주로 심신의 장애정도가 무거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및 정서장애학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장애를 지닌 학생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지도의 편리를 기하기 위함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학생수의 부족 등으로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2~5종류의 장애학생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반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의미한다. 즉,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기 곤란한 심신의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 장애 학생들과의 접촉 내지 교류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내에 병설된 학급으로서 주로 약시, 난청, 신체 허약, 교육가능 정신지체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급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특수교육기관의 구분은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종전처럼 장애정도별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으로 단순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심사위원회가 보호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통합교육의 정신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의 장애별 정도로 운영되던 방식은 점차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종전처럼 장애정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학생

을 필요한 교육기관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대 특수교육의 동향을 반영한 매우 발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특수교육기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속해 있으며 일반학급에서 학습·적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진단·평가를 받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입급되며 부분제(부분통합) 특수학급과 전일제 특수학급이 있다.

② 특수학교: 미국공법(PL-94-142) 장애아교육법에서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의 영향으로 세계적 추세는 특수학교가 점차 감소해 가고 있으며 경도 장애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으나 중도·중복 장애아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에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③ 학습 도움실(resource room): 이 교실은 보통 작은 교실인데 여기서 특수교육 교사가 하루중 시간에 따라 특수아동을 지도한다. 이 교실의 교사는 특수아동이 점차로 이 교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담임교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숙제 학교: 기숙제 학교는 역사적으로 특수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대부분의 기숙제 학교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와의 접촉이 많지 않다. 중증 장애아의 거취와 교육을 함께 하는 학교이다.

⑤ 병원, 가정 및 복지시설: 특수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병원, 가정 및 복지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게 되며 이때의 교육은 방문교사나 순회교사가 맡게 된다.

이상과 같은 기관들에서 특수교육은 이루어지며 이 외에도 더 다양한 기관에서 특수교육은 수행되고 있다.

2) 특수교육 제공과정¹⁰⁾

(1) 장애아동 찾기

진단 및 검사의 첫 단계는 학교나 사회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신체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혹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문제를 지닌 아동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다. 발굴의 과정은 보도자료, 회보, 소책자, 자동차 스티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광고 등 공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매체를 활용한다.

(2) 선별검사

선별은 문제를 지닌 아동을 1차적으로 쉽게 판별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선별검사는 제한된 훈련을 받은 검사자에 의해 관리되며 적절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선별검사는 단독으로 중재나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앞으로 충분한 사정이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판별하는데 그쳐야 한다.

(3) 평가

선별검사에 의하여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진단평가에서 조사되는 전형적인 영역은 사회사(social history), 신체적 조사, 신경학적 조사, 심리학적 조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언어조사, 교육적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의 면접, 의료적 진단, 관찰, 검사지의 활용 등 다양한 도구나 방법이 동원된다.

10) 상계서, pp.9-11.

(4)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평가를 통하여 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그 아동의 평가자료와 전문가와의 면접 및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성요소와 회의 개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개념과 구성요소

개별화 교육 계획은 아동의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다. IEP는 관련인들의 협의 속에서 개발되어 아동의 교육적 배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목적과 목표를 기술한다. IEP는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 대한 안내이면서 설계된 교육의 적절성, 교육의 목표 도달성을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IEP의 구성요소는 아동의 현재 수행수준, 장기 교육목표(당해년), 단기 교육목표, 배치기관, 정규교육 참여정도, 관련 서비스, 평가계획(일정), 부모의 승인 등이다.

② 참여 구성원과 회의 개최

IEP 참가자는 아동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학교의 대표자, 아동의 교사, 부모, 진단·평가 담당자, 필요하면 아동 등이다. IEP에는 아동의 현재 수행수준의 진술, 단기 목표를 포함하는 장기 목표의 진술, 아동에게 제공될 특수교육과 정규교육 관련 서비스, 서비스의 시작 일자와 예견된 서비스 기간, 단기 교수목표 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목표기준, 평가절차와 계획의 진술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5) 배치

아동의 특수 교육적 서비스를 결정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 완성되면 그에 따라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정규학급에 배치하게 된다. 아동의

배치기관은 부모와 전문가들의 회의에 따라 결정되며 정규교육의 참여 정도에 의해 일반학급 또는 일반학교의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6) 교수·학습

아동이 교육기관에 배치되면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의 형태는 교사 : 아동의 비가 1:1인 것이 원칙이나 현 교육여건상 실시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동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비슷한 수준끼리 모아서 2~5명의 소집단을 형성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7) 형성 및 총괄평가

특수교육은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난다. 이러한 과정 중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때 학습시간마다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월별 또는 학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별 또는 당해 학년말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총괄평가의 결과는 그 아동이 계속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특수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 총괄평가에서 특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아동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은 수정·보완되고 그 아동을 배치하는 과정이 실행된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의 과정은 진단평가에서 총괄평가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3)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편제¹¹⁾

특수학교 정신지체(정서장애), 지체부자유 교육과정의 편제를 살펴보면

11) 경희대학교, 학교교육계획(2004), pp.22-23.

다음과 같다.

(1) 정인지체(정서장애)

특수학교 정인지체(정서장애) 교육과정의 편제를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정인지체(정서장애) 교육과정의 편제

교육 내용 과정별	교과활동	치료교육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유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생활 사회생활 탐구생활 건강생활 표현생활 			
초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건강 예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운동·지각 훈련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심리·행동적응 훈련 일상 생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 - 생활훈련 - 치료교육 활동의 심화 보충 - 범교과 및 자기 주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중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건강 예능 직업 			
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건강 예능 직업 			
전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교과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건강, 예능 전문 필수교과 : 도예, 현장실습 전문 선택교과 : 목공예, 조립, 수직, 수예, 수공예, 사육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재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별행사활동 - 학교방송 -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 생활단원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2)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지체부자유 교육과정의 편제를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지체부자유 교육과정의 편제

교육 내용 과정별	교과활동	치료교육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유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생활 사회생활 탐구생활 건강생활 표현생활 			
초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 실과 도덕 · 체육 사회 · 음악 수학 · 미술 과학 · 외국어(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 · 운동 · 지각 훈련 언어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재량활동 - 교과교육 - 생활훈련 - 치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 ·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중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 체육 도덕 · 음악 사회 · 미술 수학 · 과학 외국어(영어) 기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심리 · 행동적응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화보충 - 범교과 및 자기 주도적 	
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 음악 도덕 · 미술 사회 · 국사 체육 · 수학 과학 기술 · 가정 직업 · 외국어(영어) 선택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생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재량활동 - 부별행사활동 - 학교방송 -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 생활단원 중심 학교 교육과정 운영 				

4) 특수교육의 현황

(1) 특수학교 현황

① 연도별 취학 현황¹²⁾

특수학교 연도별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특수학교 연도별 취학 현황

연도	구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1962		10	85	1,343	120
1967		22	246	3,121	280
1972		38	386	5,188	505
1977		51	617	7,342	756
1980		56	721	8,094	904
1982		65	806	10,679	994
1985		87	1,042	14,615	1,565
1986		90	1,195	15,886	1,776
1987		95	1,331	17,373	1,961
1988		97	1,487	18,390	2,212
1989		100	1,623	19,111	2,470
1990		102	1,763	19,947	2,746
1991		102	1,829	20,214	2,824
1992		103	1,896	20,690	2,992

12)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요람(2002), p.7.

연도 \ 구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1993	106	1,954	20,985	3,169
1994	106	2,006	21,262	3,272
1995	108	2,058	21,569	3,422
1996	109	2,114	21,948	3,556
1997	114	2,289	23,789	3,876
1998	118	2,415	23,487	4,016
1999	123	2,466	23,966	4,261
2000	129	2,617	24,376	4,549
2001	134	2,707	24,397	4,713
2002	136	2,757	23,795	4,911

② 특수학교 구성 현황¹³⁾

특수학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특수학교 구성 현황

장애별 \ 설립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시 각 장 애	1	2	9	12
청 각 장 애	1	4	11	16
정 신 지 체	1	31	50	82
지 체 부 자 유	1	6	12	19
정 서 장 애	1	1	5	7
계	5	44	87	136

13) 상계서, p.8.

(2)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현황

① 연도별 취학 현황¹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연도별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특수학급 연도별 취학 현황

연도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비고
1971		1	30	
1974		210	4,418	
1976		350	6,931	
1978		351	6,442	
1982		521	7,655	
1985		1,601	22,534	
1986		2,361	30,876	
1987		2,578	34,268	
1988		2,810	33,660	
1989		3,026	32,262	
1990		3,181	29,989	
1991		3,248	28,795	
1992		3,280	28,231	
1993		3,321	28,210	
1994		3,400	27,669	
1995		3,440	31,510	
1996		3,553	26,087	
1997		3,626	25,300	
1998		3,728	25,031	
1999		3,764	26,178	
2000		3,802	26,627	
2001		3,856	26,239	
2002		3,944	26,925	

14) 상계서, p.77.

②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¹⁵⁾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표 II-7> 시·도별 특수학급 현황

구 분 시·도별	특수학급수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					학생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서울	22	500	172	32	726	22	273	119	10	424	81	3,613	1,048	377	5,119
부산	7	317	44	4	372	7	238	43	4	292	30	2,316	275	59	2,680
대구	2	150	26	8	186	2	112	26	3	143	9	1,128	214	102	1,453
인천	9	170	23	14	216	3	111	22	11	147	43	1,316	192	163	1,714
광주	3	62	12	4	81	3	57	10	3	73	13	375	100	35	523
대전	2	66	9	5	82	2	44	7	4	57	9	486	81	35	611
울산	3	33	10	4	50	2	23	8	4	37	13	215	76	38	342
경기	7	416	81	36	540	5	295	52	15	367	37	3,098	604	350	4,089
강원	3	163	27	3	196	2	161	27	3	193	14	835	114	17	980
충북	2	112	51	6	171	2	112	51	5	170	4	638	319	73	1,034
충남	3	217	54	7	281	3	193	54	6	256	16	1,406	341	87	1,850
전북	2	133	30	1	166	2	130	29	1	162	11	818	206	5	1,040
전남	7	211	63	10	291	6	196	60	8	270	34	1,264	429	81	1,808
경북	2	243	36	3	284	2	199	34	3	238	11	1,425	231	22	1,689
경남	3	209	39	3	254	3	183	39	3	228	15	1,375	241	18	1,649
제주	·	35	11	2	48	·	35	11	1	47	·	250	69	25	344
계	77	3,037	688	142	3,944	66	2,362	592	84	3,104	340	20,558	4,540	1,487	26,925

15) 상계서, p.78.

3. 특수교육재정 및 사교육비

1) 특수교육재정¹⁶⁾

(1) 특수교육재정의 특성

특수교육재정은 교육재정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특수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반아동의 교육이 집단의 평균적 교육요구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교육은 아동의 개별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과 일반학급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관련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학교나 학급규모가 대체로 일반학교나 학급에 비하여 작으며 특별히 훈련된 교사와 관계직원, 특별설계를 요하는 교실과 학습자료 등의 필요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일반아동보다 경비가 많이 들지만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 내지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특수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오늘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기회균등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특수아동에

16) 윤준원, 「부산시내 특수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1992), pp.26-28.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란 동일한 교육목적을 인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양의 재정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특수아동의 각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각기 다른 양의 재정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기회균등은 개인의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재정의 균등을 의미하지만 재정배분에 미치는 요소는 특수교육체제의 내적요소와 외적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요소로는 인구(아동), 요구, 서비스 제공체계, 통치구조, 자원, 체제 경비 등이며 외적요소로는 인구, 사회, 법률, 경제, 정치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외적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수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결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결정하는 자의 가치관, 지식, 철학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3) 특수교육재정의 구성

특수교육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교육경비의 투입과정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분류할 수 있고 교육비의 재원적 측면에서 볼 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그리고 교육비의 투입목적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와 장기적 투자인 시설비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 교육기회비도 교육경비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예산,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예산, 특수학교예산, 특수학교 육성회예산 등을 들 수 있다.

(4) 특수교육비 추정

특수교육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정리하면 자원-비용모형(resource-cost model), 초과비용모형(excess cost model), 가중치모형(weighted model)으로 요약된다. 자원-비용모형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조처된 학생들의 특성과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을 근거로 경비를 추정한다. 추정절차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의 결정, 제공할 교수프로그램과 서비스 종류의 결정, 프로그램과 서비스별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추정, 각 자원별 경비 결정, 각 프로그램과 서비스별로 학생수 결정, 프로그램에서 학생과 보조원의 비율 결정 등을 통해서 산출한다.

초과비용모형은 특수아동과 일반아동 1인당 교육비를 동일하게 결정한 뒤 특수아동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초과경비를 구한다. 각 특수교육 영역별로 개인당 초과경비에 각 특수교육 영역별 교육대상 전체 아동수를 곱한 다음 각 영역별 경비를 합하면 전체 특수교육 초과경비가 산출된다. 가중치모형은 특수교육 영역별로 교육비의 차이를 양화(量化)하여 일반아 교육와 특수교육 영역별로 교육비를 비교하여 가중치 한다. 이 경우 일반학급의 아동 1인당 교육비를 1.00으로 볼 때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상담가의 조언이 부가되는 형태는 1.86, 일반학급에서 순회교사의 도움이 있을 경우 1.50, 특별지도실과 일반학급 병용은 2.00, 정시제 특수학급은 1.66, 시간제 특수학급은 1.67, 가정·병원교육은 1.34의 수치가 제시된다. 이러한 가중치를 근거로 전체 소요경비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특수교육비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교당·급당 항목별 기준단위로 책정되어지고 있어 그 결과 각 프로그램

경비가 거의 동일하며 학급내의 교육적 요구의 특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경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경비의 책정이 일반학교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교육비가 실제 소요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교육비의 일반적 성격

사교육비란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학교교육 이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¹⁷⁾ 따라서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이기호¹⁸⁾는 사교육비의 지출 성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 즉 학용품비, 교재대, 부교재대, 학교지정 의류비, 교통비, 하숙비 등이 있고 둘째, 공교육비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행상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 즉 수업준비물 구입비, 수학여행·견학·각종 클럽활동에 소요되는 단체 활동비 등이며 셋째로는 학생·학부형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지나 어느 정도는 공교육비와 중복되어 투자되는 성격을 갖는 경비, 즉 개인 과외비, 입시 학원비, 특기·재능 학원비 등이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17) 김홍주 외 2인,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pp.15-23.

18) 이기호, 「과외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2001), p.14.

일반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¹⁹⁾

<표 II-8> 사교육비의 구조

구 성 내 역	분 류 항 목
교재 구입비	학교에서 채택한 정규 교과서 내지 교재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부교재 구입비	사전, 전과, 수련장, 참고서, 일일공부 문제집, 학생용 잡지, 동화책, 문학 전집, 참고서적, 회화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과 공부에 필요한 보충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학 용 품 비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노트, 필기구류, 미술 도구, 책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수업 준비물비	자연(과학), 실과, 가정, 가사,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에서처럼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가는데 드는 비용(예 : 건전지, 자석, 요리 재료, 찰흙, 풀, 가위 등)
학교 지정 의류비	교복, 교련복, 체육복 등의 학교지정의류와 실내화, 교련화, 모자, 배지, 명찰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입시 학원비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에 입시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의 교육을 더 받는데 드는 비용
개인 과외비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에 개인교사 과외 및 대학생 과외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과외(그룹과외)를 받는데 드는 비용
특기·재능 학원비	개인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산·속셈, 타자,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유도 등의 학원비 및 해당 준비물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단체 활동비	소풍, 백일장, 미술대회, 수학여행, 현장견학, 운동회, 전시회, 학예회, 보이(걸)스카우트, 아람단, 단체 관람(연극, 영화, 미술관, 고궁 등), 기념 사진 촬영, 클럽활동 및 학회활동 등을 위한 비용
교 통 비	학교, 학원(과외 포함)통학을 위하여 드는 버스비, 전철비, 기타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급 식 비	유치원 및 학교에서 별도로 간식 또는 중식을 위하여 드는 비용
하 숙 비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드는 기숙사비, 자취비 또는 하숙비
잡 비	학교위생비, 검사지대, 학급비, 졸업비, 신문대금, 환경미화비, 위문금·의연금 등 각종 성금
기 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기부금 및 사례비(촌지) 등

19) 공은배·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4), pp.84-85.

4. 선행연구의 고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나 요즘 사회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자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본 연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선행 연구물의 내용을 고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혜경²⁰⁾은 사교육비의 지나친 투자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여에서 비롯되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의 안정적 확보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고 현행 학교 교육을 입시 위주가 아닌 전인교육을 위한 풍토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교육비 중 학원비와 과외활동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들의 교육기회가 달라지므로 교육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배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희²¹⁾는 1인당 공교육비의 낮은 분포는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매년 증가시키고 있으며 사교육비 항목 중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사설 학원 수강료로서 이는 학교 밖의 학원교육을 학교안 교육으로 유입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교교육에 있어 예·체능 및 특기교육의 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사설학원 수강료가 가장 큰 지출이므로 학교교육에 있어 실기 및 예능교육의 확산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임혜경,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1990).

21) 이춘희,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1990).

주영랑²²⁾은 공교육비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교육에 투자되는 직접 교육비의 재원은 사부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사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욱 심하게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격차로 인해 아동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강조점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로 유입되어야 하고, 특활시간의 적절한 운영 및 명예교사의 활용으로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기해야하며, 단체활동이나 행사는 모든 학생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혜영²³⁾은 사설학원 수업료는 가계수입이 저소득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저소득·저학력의 학부모를 가진 아동들의 학교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공교육에서의 배려가 요구되며, 사설학원 교육은 일부 계층 아동들의 전유물이 아닌 하위계층 아동들이 학교교육에서 부족되기 쉬운 학과의 보충교육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사설학원 수업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이들 계층의 예비·보충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단계이니 만큼 사교육비 지출 및 교육기회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계층간에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의무교육, 책임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선행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교육비의 부족은 공교육의 부실을 가져오며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복

22) 주영랑,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1992).

23) 최혜영, 「사설학원의 사교육비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1992).

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권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의 과도한 소비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을 통한 특수교육 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절감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정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에서는 사교육기관의 이용 경험과 교육영역, 치료교육의 내용,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의 이용 수,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등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한다.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에서는 과외비나 학원비 및 치료교육비의 지속적인 지출의지와 지출에 대한 계획성 및 사교육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 부업을 통한 사교육비 지출 의지를 알아보고, 적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감 정도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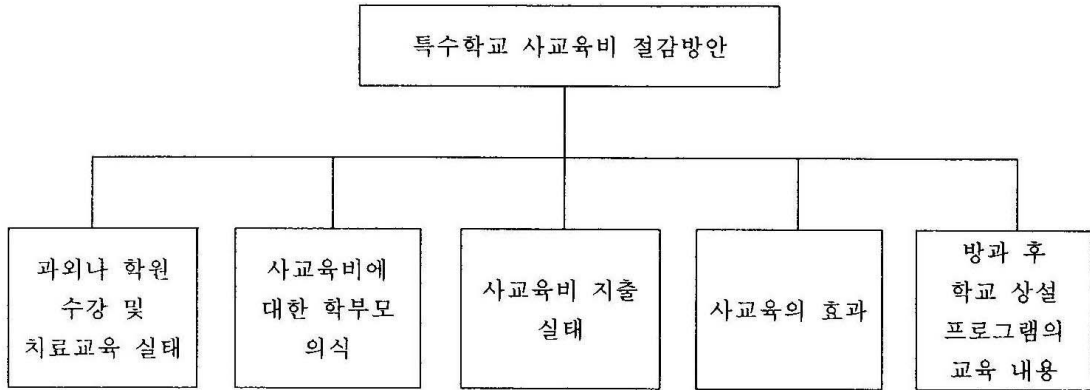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서는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학습관련 및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사교육비 총액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적정성 정도, 다른 가정 학생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사교육의 효과에서는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장애상태 개선 효과, 진로결정에의 영향 정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중심으로 분석한다.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에서는 운영 희망 교육영역과 학습관련 및 치료교육 활동의 희망지도 교사,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 희

망 교사당 학생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림 III-1> 분석모형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특수학교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정진학교), 대구(남양학교), 경주(경희학교)의 3개 특수학교 3과정(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분석대상으로 적합하고 일관성 있게 응답한 254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 사교육비 지출실태, 사교육의 효과,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문항내용	문항번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지역 · 학교명, 과정별, 성별, 장애유형	1 - 4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	·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이용 경험	5
	· 과외 및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	6
	· 장애개선 훈련 및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	7
	·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의 이용 수	8
	·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9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의식	· 과외비나 학원비 및 치료교육비의 지속적인 지출 의지	10
	· 사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계획성 정도	11
	· 경제적 부담시 부업을 통한 사교육비 지출 의지	12
	· 적은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 정도	13
사교육비 지출실태	·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14
	· 학습관련 학원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15
	·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16
	· 사교육비 총액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7
	·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적정성 정도	18
	· 다른 가정 학생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19
사교육의 효과	·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 장애상태 개선 효과	20
	·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진로결정에의 영향 정도	21
	·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22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희망 교육영역	23
	·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24
	·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	25
	·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26
	·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27
	·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비	28
	·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29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분석을 하였으며, 특수학교 사교육비 지출상태와 절감방안과 관련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지 역	서 울	110	43.3
	대 구	69	27.2
	경 주	75	29.5
과 정	초등부	70	27.6
	중학부	108	42.5
	고등부	76	29.9
성 별	남	181	71.3
	여	73	28.7
장애유형	정신지체	202	79.5
	지체부자유	22	8.7
	정서장애	27	10.6
	기타	3	1.2
계		254	100.0

총 254명 중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주지역 29.5%, 대구지역 27.2% 순으로 나타났다. 과정별로는 중학부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부 29.9%, 초등부 27.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71.3%로, 여자 28.7%보다 많았다. 장애유형

별로는 정신지체가 7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장애 10.6%, 지체부자유 8.7%,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2.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

1)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이용 경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이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학부모가 8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학부모는 16.1%로 비교적 적었다.

<표 IV-2>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이용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지역	서울	101 (91.8)	9 (8.2)	110 (43.3)	9.17 (2)	0.010*
	대구	53 (76.8)	16 (23.2)	69 (27.2)		
	경주	59 (78.7)	16 (21.3)	75 (29.5)		
과정	초등부	60 (85.7)	10 (14.3)	70 (27.6)	21.00 (2)	0.000***
	중학부	101 (93.5)	7 (6.5)	108 (42.5)		
	고등부	52 (68.4)	24 (31.6)	76 (29.9)		
성별	남	157 (86.7)	24 (13.3)	181 (71.3)	3.87 (1)	0.049*
	여	56 (76.7)	17 (23.3)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169 (83.7)	33 (16.3)	202 (79.5)	0.03 (1)	0.868
	비정신지체	44 (84.6)	8 (15.4)	52 (20.5)		
계		213 (83.9)	41 (16.1)	254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많았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9.17$, $p<.05$).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많았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21.00$, $p<.001$).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3.87$, $p<.05$).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별다른 차이 없이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으며, 서울지역 학부모와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 그리고 남자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많았다.

2) 과외 및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이 예·체능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가 2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교과교육 24.2%, 전산교육 4.8%, 과학교육 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이 예·체능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과외 및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

(복수응답)

구 분	반도(명)	백분율(%)
일반교과교육	56	24.2
예·체능교육	63	27.3
전 산 교 육	11	4.8
과 학 교 육	2	0.9
기 타	99	42.9
계	231	100.0

3) 장애개선 훈련 및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

자녀들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개선 훈련이나 치료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장애개선 훈련 및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

(복수응답)

구 분	반도(명)	백분율(%)
보 행 훈 련	8	3.3
물 리 치 료	16	6.6
언 어 지 도	66	27.2
생활적응훈련	110	45.3
기 타	43	17.7
계	243	100.0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개선 훈련이나 치료교육으로 생활적응훈련 내용을 받은 자녀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지도 27.2%, 물리치료 6.6%, 보행훈련 3.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개선 훈련이나 치료교육으로 생활적응훈련 내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의 이용 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이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8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군데 16.9%, 3군데 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의 이용 수

구 분		1군데	2군데	3군데	계	χ^2 (df)	p
지역	서울	76 (75.2)	25 (24.8)	-	101 (47.4)	19.14 (4)	0.001**
	대구	43 (81.1)	5 (9.4)	5 (9.4)	53 (24.9)		
	경주	52 (88.1)	6 (10.2)	1 (1.7)	59 (27.7)		
과정	초등부	48 (80.0)	10 (16.7)	2 (3.3)	60 (28.2)	2.23 (4)	0.694
	중학부	81 (80.2)	16 (15.8)	4 (4.0)	101 (47.4)		
	고등부	42 (80.8)	10 (19.2)	-	52 (24.4)		
성별	남	124 (79.0)	30 (19.1)	3 (1.9)	157 (73.7)	3.59 (2)	0.166
	여	47 (83.9)	6 (10.7)	3 (5.4)	56 (26.3)		
장애 유형	정신지체	138 (81.7)	27 (16.0)	4 (2.4)	169 (79.3)	1.20 (2)	0.550
	비정신지체	33 (75.0)	9 (20.5)	2 (4.5)	44 (20.7)		
계		171 (80.3)	36 (16.9)	6 (2.8)	213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경주지역 학부모 자녀가 다른 지역 학부모 자녀보다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 이용하였고, 서울지역 학부모 자녀는 2군데를, 대구지역 학부모 자녀는 다른 지역 자녀보다 3군데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14$, $p<.05$). 자녀의 과정보로는 고등부 자녀가 초등부 자녀와 중학부 자녀보다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2군데 이용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 이용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 이용하였고, 정신지체가 아닌 자녀는 정신지체 자녀보다 2군데를 이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 이용하였으며, 대구지역 자녀들이 다른 지역 자녀들보다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3군데 이용하였다.

5)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이 부모님의 영향이 5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생님 31.9%, 본인 8.0%, 기타 3.8%, 동료학생 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대구가 경주지역보다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경주지역은 서울지역과 대구지역보다 본인이 결정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등부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 선택시 영향을 미친 사람

구분		부모님	본인	동료학생	선생님	기타	계	χ^2 (df)	p
지역	서울	57 (56.4)	7 (6.9)	1 (1.0)	34 (33.7)	2 (2.0)	101 (47.4)	7.34 (8)	0.501
	대구	31 (58.5)	3 (5.7)	1 (1.9)	15 (28.3)	3 (5.7)	53 (24.9)		
	경주	27 (45.8)	7 (11.9)	3 (5.1)	19 (32.2)	3 (5.1)	59 (27.7)		
과정	초등부	32 (53.3)	6 (10.0)	-	18 (30.0)	4 (6.7)	60 (28.2)	9.64 (8)	0.291
	중학부	50 (49.5)	10 (9.9)	4 (4.0)	35 (34.7)	2 (2.0)	101 (47.4)		
	고등부	33 (63.5)	1 (1.9)	1 (1.9)	15 (28.8)	2 (3.8)	52 (24.4)		
성별	남	91 (58.0)	10 (6.4)	3 (1.9)	48 (30.6)	5 (3.2)	157 (73.7)	5.03 (4)	0.284
	여	24 (42.9)	7 (12.5)	2 (3.6)	20 (35.7)	3 (5.4)	56 (26.3)		
장애 유형	정신지체	97 (57.4)	12 (7.1)	3 (1.8)	51 (30.2)	6 (3.6)	169 (79.3)	4.57 (4)	0.335
	비정신지체	18 (40.9)	5 (11.4)	2 (4.5)	17 (38.6)	2 (4.5)	44 (20.7)		
계		115 (54.0)	17 (8.0)	5 (2.3)	68 (31.9)	8 (3.8)	213 (100.0)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녀가 여자인 경우는 남자인 경우보다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경우가

정신지체인 경우보다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

1) 과외비나 학원비 및 치료교육비의 지속적인 지출 의지

학부모들이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이 전체 평균이 2.97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면 계속 지출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과외비나 학원비 및 치료교육비의 지속적인 지출 의지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3.20	0.81	6.93	0.001**
	대구	69	2.68	0.95		
	경주	75	2.91	1.06		
과정	초등부	70	3.01	0.99	0.83	0.436
	중학부	108	3.03	0.90		
	고등부	76	2.86	0.98		
성별	남	181	2.96	0.96	-0.29	0.769
	여	73	3.00	0.93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99	0.92	0.42	0.674
	비정신지체	52	2.92	1.05		
전 체		254	2.97	0.95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높았고, 대구지역 학부모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지출할 의향이 낮았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93$, $p<.01$).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와 중학부인 학부모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높았으나 자녀의 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자녀의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할 의향이 높았다.

2) 사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계획성 정도

학부모들이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우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5로, 학부모들은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그다지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웠고, 대구지역 학부모는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웠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가 초등부인 학부모보다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자녀의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78$, $p<.01$).

<표 IV-8> 사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계획성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 울	110	2.99	0.96	2.74	0.066
	대 구	69	2.64	0.99		
	경 주	75	2.85	1.01		
과정	초등부	70	2.89	1.06	4.78	0.009**
	중학부	108	3.03	0.96		
	고등부	76	2.58	0.91		
성별	남	181	2.85	0.97	-0.09	0.929
	여	73	2.86	1.05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85	0.96	-0.25	0.805
	비정신지체	52	2.88	1.11		
전 체		254	2.85	0.99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 없이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그다지 세우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학부모들이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웠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그다지 세우지 않았으며,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학부모들이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웠다.

3) 경제적 부담시 부업을 통한 사교육비 지출 의지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고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이 전체 평균이 2.94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경제적 부담시 부업을 통한 사교육비 지출 의지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3.10	0.90	2.70	0.069
	대구	69	2.80	1.02		
	경주	75	2.84	0.99		
과정	초등부	70	3.16	0.90	3.77	0.024*
	중학부	108	2.95	0.96		
	고등부	76	2.72	1.00		
성별	남	181	2.90	0.96	-1.19	0.234
	여	73	3.05	0.98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96	0.95	0.47	0.638
	비정신지체	52	2.88	1.02		
전 체		254	2.94	0.97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높았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가장 높았고, 고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낮았으며, 자녀의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77, p<.05$).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인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할 의향이 높았다.

4) 적은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 정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3으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그

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학부모가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꼈고, 서울지역 학부모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적게 느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꼈고, 고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인 학부모보다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적게 느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0> 적은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2.78	1.00	0.50	0.610
	대구	69	2.94	1.15		
	경주	75	2.81	1.10		
과정	초등부	70	2.94	0.99	0.77	0.464
	중학부	108	2.84	1.15		
	고등부	76	2.72	1.03		
성별	남	181	2.81	1.07	-0.66	0.512
	여	73	2.90	1.08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84	1.04	0.06	0.954
	비정신지체	52	2.83	1.20		
전 체		254	2.83	1.07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많이 느꼈으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

모가 별다른 차이 없이 사교육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사교육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으며, 자녀의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사교육비 지출 실태

1)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소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학부모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26.0%, 100만원 미만 15.4%, 300~400만원 미만 11.4%, 400만원 이상 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10 (9.1)	44 (40.0)	31 (28.2)	18 (16.4)	7 (6.4)	110 (43.3)	11.42 (8)	0.179
	대구	15 (21.7)	29 (42.0)	14 (20.3)	7 (10.1)	4 (5.8)	69 (27.2)		
	경주	14 (18.7)	32 (42.7)	21 (28.0)	4 (5.3)	4 (5.3)	75 (29.5)		
과정	초등부	10 (14.3)	30 (42.9)	19 (27.1)	8 (11.4)	3 (4.3)	70 (27.6)	2.73 (8)	0.950
	중학부	14 (13.0)	46 (42.6)	27 (25.0)	14 (13.0)	7 (6.5)	108 (42.5)		
	고등부	15 (19.7)	29 (38.2)	20 (26.3)	7 (9.2)	5 (6.6)	76 (29.9)		
성별	남	26 (14.4)	75 (41.4)	50 (27.6)	20 (11.0)	10 (5.5)	181 (71.3)	1.28 (4)	0.864
	여	13 (17.8)	30 (41.1)	16 (21.9)	9 (12.3)	5 (6.8)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33 (16.3)	86 (42.6)	51 (25.2)	20 (9.9)	12 (5.9)	202 (79.5)	3.18 (4)	0.528
	비정신지체	6 (11.5)	19 (36.5)	15 (28.8)	9 (17.3)	3 (5.8)	52 (20.5)		
계		39 (15.4)	105 (41.3)	66 (26.0)	29 (11.4)	15 (5.9)	254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와 경주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와 중학부인 학부모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 많았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보다 100만원 미만이 많았으나 자녀의 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 많았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는 남자인 학부모보다 100만원 미만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 많았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400만원 미만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습관련 학원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 지출 규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 30.5%, 20~30만원 미만 14.1%, 30~40만원 미만 8.0%, 50만원 이상 5.6%, 40~50만원 미만 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경주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대구지역 학부모는 서

울지역과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2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보다 1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만원 미만 혹은 10~2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는 남자인 학부모보다 30~4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2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30~4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2> 학습관련 학원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구 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40 (39.6)	36 (35.6)	9 (8.9)	9 (8.9)	3 (3.0)	4 (4.0)	101 (47.4)	11.38 (10)	0.329
	대구	16 (30.2)	12 (22.6)	11 (20.8)	5 (9.4)	4 (7.5)	5 (9.4)	53 (24.9)		
	경주	22 (37.3)	17 (28.8)	10 (16.9)	3 (5.1)	4 (6.8)	3 (5.1)	59 (27.7)		
과정	초등부	19 (31.7)	18 (30.0)	10 (16.7)	7 (11.7)	3 (5.0)	3 (5.0)	60 (28.2)	9.11 (10)	0.522
	중학부	37 (36.6)	33 (32.7)	17 (16.8)	6 (5.9)	4 (4.0)	4 (4.0)	101 (47.4)		
	고등부	22 (42.3)	14 (26.9)	3 (5.8)	4 (7.7)	4 (7.7)	5 (9.6)	52 (24.4)		
성별	남	61 (38.9)	50 (31.8)	21 (13.4)	9 (5.7)	8 (5.1)	8 (5.1)	157 (73.7)	5.47 (5)	0.361
	여	17 (30.4)	15 (26.8)	9 (16.1)	8 (14.3)	3 (5.4)	4 (7.1)	56 (26.3)		
장애 유형	정신지체	62 (36.7)	53 (31.4)	26 (15.4)	12 (7.1)	9 (5.3)	7 (4.1)	169 (79.3)	5.24 (5)	0.387
	비정신지체	16 (36.4)	12 (27.3)	4 (9.1)	5 (11.4)	2 (4.5)	5 (11.4)	44 (20.7)		
계		78 (36.6)	65 (30.5)	30 (14.1)	17 (8.0)	11 (5.2)	12 (5.6)	213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이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 31.0%, 20~30만원 미만 14.1%, 30~40만원 미만 8.9%, 50만원 이상 4.7%, 40~50만원 미만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

구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50 (49.5)	32 (31.7)	6 (5.9)	7 (6.9)	2 (2.0)	4 (4.0)	101 (47.4)	28.69 (10)	0.001**
	대구	9 (17.0)	17 (32.1)	12 (22.6)	10 (18.9)	2 (3.8)	3 (5.7)	53 (24.9)		
	경주	22 (37.3)	17 (28.8)	12 (20.3)	2 (3.4)	3 (5.1)	3 (5.1)	59 (27.7)		
과정	초등부	17 (28.3)	21 (35.0)	12 (20.0)	7 (11.7)	1 (1.7)	2 (3.3)	60 (28.2)	11.32 (10)	0.333
	중학부	45 (44.6)	32 (31.7)	11 (10.9)	5 (5.0)	4 (4.0)	4 (4.0)	101 (47.4)		
	고등부	19 (36.5)	13 (25.0)	7 (13.5)	7 (13.5)	2 (3.8)	4 (7.7)	52 (24.4)		
성별	남	64 (40.8)	50 (31.8)	19 (12.1)	11 (7.0)	5 (3.2)	8 (5.1)	157 (73.7)	5.66 (5)	0.341
	여	17 (30.4)	16 (28.6)	11 (19.6)	8 (14.3)	2 (3.6)	2 (3.6)	56 (26.3)		
장애유형	정신지체	67 (39.6)	56 (33.1)	19 (11.2)	16 (9.5)	4 (2.4)	7 (4.1)	169 (79.3)	9.39 (5)	0.095
	비정신지체	14 (31.8)	10 (22.7)	11 (25.0)	3 (6.8)	3 (6.8)	3 (6.8)	44 (20.7)		
계		81 (38.0)	66 (31.0)	30 (14.1)	19 (8.9)	7 (3.3)	10 (4.7)	213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는 서울지역 학부모보다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28.69$, $p<.01$).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중학부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보다 1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는 남자인 학부모보다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 혹은 10~2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20~30만원 미만을 지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해 치료교육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사교육비 총액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이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10% 미만을 차지하는 학부모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0% 미만 35.2%, 20~30%

미만 8.5%, 30~40% 미만 5.2%, 40% 이상 2.8% 순으로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가계 총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었으며 대구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20~30% 미만을 차지하여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46$, $p<.01$).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가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10% 미만을 차지하였고,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10~2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자녀의 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10% 미만을 차지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10~2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10~20%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4> 사교육비 총액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61 (60.4)	33 (32.7)	4 (4.0)	2 (2.0)	1 (1.0)	101 (47.4)	20.46 (8)	0.009**
	대구	19 (35.8)	20 (37.7)	9 (17.0)	3 (5.7)	2 (3.8)	53 (24.9)		
	경주	23 (39.0)	22 (37.3)	5 (8.5)	6 (10.2)	3 (5.1)	59 (27.7)		
과정	초등부	23 (38.3)	28 (46.7)	4 (6.7)	4 (6.7)	1 (1.7)	60 (28.2)	9.47 (8)	0.304
	중학부	51 (50.5)	33 (32.7)	11 (10.9)	4 (4.0)	2 (2.0)	101 (47.4)		
	고등부	29 (55.8)	14 (26.9)	3 (5.8)	3 (5.8)	3 (5.8)	52 (24.4)		
성별	남	82 (52.2)	52 (33.1)	13 (8.3)	7 (4.5)	3 (1.9)	157 (73.7)	4.93 (4)	0.295
	여	21 (37.5)	23 (41.1)	5 (8.9)	4 (7.1)	3 (5.4)	56 (26.3)		
장애유형	정신지체	82 (48.5)	57 (33.7)	16 (9.5)	10 (5.9)	4 (2.4)	169 (79.3)	3.00 (4)	0.557
	비정신지체	21 (47.7)	18 (40.9)	2 (4.5)	1 (2.3)	2 (4.5)	44 (20.7)		
계		103 (48.4)	75 (35.2)	18 (8.5)	11 (5.2)	6 (2.8)	213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10% 미만을 차지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가계 총소득 중 사교육비가 20~30% 미만을 차지하였다.

5)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적정성 정도

학부모들이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이 전체 평균이 2.87로, 학부모들은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그다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적정성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3.03	0.90	3.07	0.048*
	대구	69	2.80	0.96		
	경주	75	2.69	0.97		
과정	초등부	70	2.79	1.03	1.40	0.249
	중학부	108	2.98	0.95		
	고등부	76	2.78	0.86		
성별	남	181	2.91	0.96	1.06	0.291
	여	73	2.77	0.92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87	0.94	0.17	0.865
	비정신지체	52	2.85	1.00		
전 체		254	2.87	0.95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가장 적정하다고 인식하였고, 경주지역 학부모는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07, p<.05$).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초등부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별다른 차이 없이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그다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그다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6) 다른 가정 학생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16>과 같이 전체 평균이 2.39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서울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16, p<.01$).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중학부인 학부모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자녀의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33, p<.05$).

<표 IV-16> 다른 가정 학생과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 울	110	2.23	0.90	6.16	0.002**
	대 구	69	2.71	1.00		
	경 주	75	2.33	0.84		
과정	초등부	70	2.61	0.98	3.33	0.037*
	중학부	108	2.25	0.91		
	고등부	76	2.38	0.88		
성별	남	181	2.39	0.97	-0.08	0.935
	여	73	2.40	0.83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41	0.96	0.55	0.585
	비정신지체	52	2.33	0.79		
전 체		254	2.39	0.93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와 여자인 학부모가 별다른 차이 없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사교육의 효과

1)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장애상태 개선 효과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7로, 학부모들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장애상태 개선 효과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2.93	0.62	1.00	0.371
	대구	69	2.86	0.69		
	경주	75	2.79	0.72		
과정	초등부	70	2.93	0.71	0.64	0.528
	중학부	108	2.81	0.64		
	고등부	76	2.88	0.67		
성별	남	181	2.91	0.66	1.50	0.135
	여	73	2.77	0.68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86	0.66	-0.22	0.824
	비정신지체	52	2.88	0.70		
전 체		254	2.87	0.67		

* $p < .05$, ** $p < .01$, *** $p < .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고, 경주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고,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별다른 차이 없이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진로결정에의 영향 정도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2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학부모가 서울지역과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고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88$, $p<.05$).

<표 IV-18>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의 진로결정에의 영향 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 울	110	3.00	0.93	0.26	0.773
	대 구	69	3.09	0.82		
	경 주	75	3.00	0.79		
과정	초등부	70	3.24	0.79	3.88	0.022*
	중학부	108	3.00	0.90		
	고등부	76	2.86	0.83		
성별	남	181	2.98	0.83	-1.18	0.240
	여	73	3.12	0.91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99	0.87	-1.41	0.159
	비정신지체	52	3.17	0.79		
전 체		254	3.02	0.86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며, 자

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자녀의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3)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와 같이 전체 평균이 2.67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구 분		n	Mean	SD	t(F)	p
지역	서울	110	2.74	0.95	1.45	0.236
	대구	69	2.51	0.87		
	경주	75	2.71	0.90		
과정	초등부	70	2.81	0.89	1.67	0.190
	중학부	108	2.66	0.93		
	고등부	76	2.54	0.90		
성별	남	181	2.62	0.89	-1.13	0.260
	여	73	2.77	0.97		
장애 유형	정신지체	202	2.65	0.94	-0.41	0.683
	비정신지체	52	2.71	0.83		
전 체		254	2.67	0.91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고, 고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

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가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1)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희망 교육영역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학부모들이 자녀가 교육받기 원하는 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이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치료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부모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체능교육 37.0%, 일반 교과교육 8.7%, 전산교육 5.1%, 기타 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예·체능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대구지역 학부모는 서울지역과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자녀가 치료교육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치료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중학부 학부모는 초등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자녀가 예·체능교육

을 받기를 원하였으며, 자녀의 교육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19, p<.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예·체능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예·체능교육을 받기를 원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는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치료교육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20>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 희망 교육영역

구 분		일반 교과교육	예·체능 교육	전산교육	치료교육	기타	계	χ^2 (df)	p
지역	서 울	5 (4.5)	48 (43.6)	7 (6.4)	47 (42.7)	3 (2.7)	110 (43.3)	15.08 (8)	0.058
	대 구	5 (7.2)	20 (29.0)	3 (4.3)	35 (50.7)	6 (8.7)	69 (27.2)		
	경 주	12 (16.0)	26 (34.7)	3 (4.0)	32 (42.7)	2 (2.7)	75 (29.5)		
과정	초등부	7 (10.0)	20 (28.6)	1 (1.4)	41 (58.6)	1 (1.4)	70 (27.6)	21.19 (8)	0.007**
	중학부	5 (4.6)	52 (48.1)	6 (5.6)	41 (38.0)	4 (3.7)	108 (42.5)		
	고등부	10 (13.2)	22 (28.9)	6 (7.9)	32 (42.1)	6 (7.9)	76 (29.9)		
성별	남	17 (9.4)	68 (37.6)	9 (5.0)	83 (45.9)	4 (2.2)	181 (71.3)	7.14 (4)	0.129
	여	5 (6.8)	26 (35.6)	4 (5.5)	31 (42.5)	7 (9.6)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18 (8.9)	78 (38.6)	9 (4.5)	87 (43.1)	10 (5.0)	202 (79.5)	3.20 (4)	0.525
	비정신지체	4 (7.7)	16 (30.8)	4 (7.7)	27 (51.9)	1 (1.9)	52 (20.5)		
계		22 (8.7)	94 (37.0)	13 (5.1)	114 (44.9)	11 (4.3)	254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자녀가 치료교육을 받기를 가장 원하였으며,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상설 프로그램 운영시 치료교육을 받

기를 원하였다.

2)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적절한 지도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부인사(학원강사 등) 33.9%, 비담임 교사 13.4%, 자원 봉사자 9.1%, 기타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구 분	담임교사	외부인사 (학원 강사 등)	비담임 교사	자원 봉사자	기타	계	χ^2 (df)	p	
지역	서울	32 (29.1)	38 (34.5)	21 (19.1)	12 (10.9)	7 (6.4)	110 (43.3)	13.25 (8)	0.104
	대구	26 (37.7)	23 (33.3)	9 (13.0)	5 (7.2)	6 (8.7)	69 (27.2)		
	경주	37 (49.3)	25 (33.3)	4 (5.3)	6 (8.0)	3 (4.0)	75 (29.5)		
과정	초등부	26 (37.1)	25 (35.7)	11 (15.7)	2 (2.9)	6 (8.6)	70 (27.6)	10.42 (8)	0.237
	중학부	38 (35.2)	36 (33.3)	18 (16.7)	12 (11.1)	4 (3.7)	108 (42.5)		
	고등부	31 (40.8)	25 (32.9)	5 (6.6)	9 (11.8)	6 (7.9)	76 (29.9)		
성별	남	72 (39.8)	60 (33.1)	27 (14.9)	16 (8.8)	6 (3.3)	181 (71.3)	11.09 (4)	0.026*
	여	23 (31.5)	26 (35.6)	7 (9.6)	7 (9.6)	10 (13.7)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74 (36.6)	69 (34.2)	28 (13.9)	18 (8.9)	13 (6.4)	202 (79.5)	0.40 (4)	0.982
	비정신지체	21 (40.4)	17 (32.7)	6 (11.5)	5 (9.6)	3 (5.8)	52 (20.5)		
계	95 (37.4)	86 (33.9)	34 (13.4)	23 (9.1)	16 (6.3)	254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경주지역 학부모가 서울지역과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서울지역 학부모는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비담

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가 초등부와 중학부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외부인사(학원 강사 등)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는 남자인 학부모보다 외부인사(학원 강사 등)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1.09$, $p<.05$).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외부인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 담임교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3)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비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이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인 것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만원~3만원 미만 28.7%, 1만원 미만 20.9%, 3

만원~4만원 미만 12.6%, 5만원 이상 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2만원~3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경주지역 학부모는 서울지역과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1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3.28, p<.01$).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1만원~2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2>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

구 분		1만원 미만	1만원~ 2만원 미만	2만원~ 3만원 미만	3만원~ 4만원 미만	5만원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12 (10.9)	39 (35.5)	38 (34.5)	20 (18.2)	1 (0.9)	110 (43.3)	23.28 (8)	0.003**
	대구	18 (26.1)	23 (33.3)	21 (30.4)	5 (7.2)	2 (2.9)	69 (27.2)		
	경주	23 (30.7)	26 (34.7)	14 (18.7)	7 (9.3)	5 (6.7)	75 (29.5)		
과정	초등부	23 (32.9)	20 (28.6)	19 (27.1)	8 (11.4)	-	70 (27.6)	13.03 (8)	0.111
	중학부	20 (18.5)	37 (34.3)	30 (27.8)	16 (14.8)	5 (4.6)	108 (42.5)		
	고등부	10 (13.2)	31 (40.8)	24 (31.6)	8 (10.5)	3 (3.9)	76 (29.9)		
성별	남	36 (19.9)	64 (35.4)	53 (29.3)	23 (12.7)	5 (2.8)	181 (71.3)	0.75 (4)	0.945
	여	17 (23.3)	24 (32.9)	20 (27.4)	9 (12.3)	3 (4.1)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39 (19.3)	74 (36.6)	61 (30.2)	22 (10.9)	6 (3.0)	202 (79.5)	5.39 (4)	0.250
	비정신지체	14 (26.9)	14 (26.9)	12 (23.1)	10 (19.2)	2 (3.8)	52 (20.5)		
계		53 (20.9)	88 (34.6)	73 (28.7)	32 (12.6)	8 (3.1)	254 (100.0)		

* p<.05, ** p<.01, *** p<.001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

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경주지역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4)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적절한 학생수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같이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는 2~4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학부모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7명 27.2%, 1명 6.7%, 8~10명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구 분		1명	2~4명	5~7명	8~10명	계	χ^2 (df)	p
지역	서울	4 (3.6)	69 (62.7)	35 (31.8)	2 (1.8)	110 (43.3)	5.27 (6)	0.510
	대구	7 (10.1)	43 (62.3)	17 (24.6)	2 (2.9)	69 (27.2)		
	경주	6 (8.0)	51 (68.0)	17 (22.7)	1 (1.3)	75 (29.5)		
과정	초등부	5 (7.1)	49 (70.0)	16 (22.9)	-	70 (27.6)	9.07 (6)	0.170
	중학부	7 (6.5)	72 (66.7)	28 (25.9)	1 (0.9)	108 (42.5)		
	고등부	5 (6.6)	42 (55.3)	25 (32.9)	4 (5.3)	76 (29.9)		
성별	남	12 (6.6)	118 (65.2)	47 (26.0)	4 (2.2)	181 (71.3)	0.63 (3)	0.891
	여	5 (6.8)	45 (61.6)	22 (30.1)	1 (1.4)	73 (28.7)		
장애유형	정신지체	12 (5.9)	133 (65.8)	55 (27.2)	2 (1.0)	202 (79.5)	6.06 (3)	0.109
	비정신지체	5 (9.6)	30 (57.7)	14 (26.9)	3 (5.8)	52 (20.5)		
계		17 (6.7)	163 (64.2)	69 (27.2)	5 (2.0)	254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는 5~7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경주지역 학부모는 서울지역과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2~4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는 2~4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보다 5~7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는 2~4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5~7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는 2~4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8~10명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학교에서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지도교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이 학교에서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치료교육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를 원하

는 학부모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치료교육교사 37.0%, 담임교사 10.6%, 기타 2.0%, 자원 봉사자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

구 분		담 임 교 사	학 교 치 료 교 육 교 사	외 부 치 료 교 육 자 격 증 소 지 자	자 원 봉 사 자	기 타	계	χ^2 (df)	p
지역	서 울	11 (10.0)	49 (44.5)	46 (41.8)	2 (1.8)	2 (1.8)	110 (43.3)	8.94 (8)	0.347
	대 구	5 (7.2)	22 (31.9)	40 (58.0)	1 (1.4)	1 (1.4)	69 (27.2)		
	경 주	11 (14.7)	23 (30.7)	39 (52.0)	-	2 (2.7)	75 (29.5)		
과정	초 등 부	6 (8.6)	31 (44.3)	32 (45.7)	-	1 (1.4)	70 (27.6)	13.35 (8)	0.100
	중 학 부	11 (10.2)	43 (39.8)	53 (49.1)	1 (0.9)	-	108 (42.5)		
	고 등 부	10 (13.2)	20 (26.3)	40 (52.6)	2 (2.6)	4 (5.3)	76 (29.9)		
성별	남	20 (11.0)	67 (37.0)	90 (49.7)	2 (1.1)	2 (1.1)	181 (71.3)	2.55 (4)	0.635
	여	7 (9.6)	27 (37.0)	35 (47.9)	1 (1.4)	3 (4.1)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22 (10.9)	75 (37.1)	99 (49.0)	3 (1.5)	3 (1.5)	202 (79.5)	2.02 (4)	0.732
	비정신지체	5 (9.6)	19 (36.5)	26 (50.0)	-	2 (3.8)	52 (20.5)		
계		27 (10.6)	94 (37.0)	125 (49.2)	3 (1.2)	5 (2.0)	254 (100.0)		

* $p < .05$, ** $p < .01$, *** $p < .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학교 치료교육교사가 지도하기를 원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와 고등부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학교 치료교육교사가 지도하기를 원하였고, 자녀가 고등부인 학부모는 초등부와 중학부인 학부모보다 외부 치료교육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를

원하였으나 자녀의 교육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를 원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별다른 차이없이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를 가장 원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비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25>와 같이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인식한 학부모가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만원~3만원 미만 27.6%, 1만원 미만 19.7%, 3만원~4만원 미만 15.0%, 5만원 이상 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가 대구와 경주지역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원하였고, 경주지역 학부모는 서울지역과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1만원 미만을 원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9.27$, $p<.05$).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 미만을 원하였고, 중학부 학부모는 초등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1만원~2만원 미만을 희망하였으며, 과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5.60$, $p<.05$).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남자인 학부모가 여자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원하였고,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는 남자인 학부모보다 3~4만원 미만을 원하였으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원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3~4만원 미만을 희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5>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비

구 분		1만원 미만	1만원~2만원 미만	2만원~3만원 미만	3만원~4만원 미만	5만원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9 (8.2)	41 (37.3)	35 (31.8)	20 (18.2)	5 (4.5)	110 (43.3)	19.27 (8)	0.014*
	대구	19 (27.5)	18 (26.1)	21 (30.4)	8 (11.6)	3 (4.3)	69 (27.2)		
	경주	22 (29.3)	26 (34.7)	14 (18.7)	10 (13.3)	3 (4.0)	75 (29.5)		
과정	초등부	21 (30.0)	21 (30.0)	15 (21.4)	13 (18.6)	-	70 (27.6)	15.60 (8)	0.048*
	중학부	16 (14.8)	39 (36.1)	33 (30.6)	16 (14.8)	4 (3.7)	108 (42.5)		
	고등부	13 (17.1)	25 (32.9)	22 (28.9)	9 (11.8)	7 (9.2)	76 (29.9)		
성별	남	34 (18.8)	62 (34.3)	52 (28.7)	25 (13.8)	8 (4.4)	181 (71.3)	1.26 (4)	0.869
	여	16 (21.9)	23 (31.5)	18 (24.7)	13 (17.8)	3 (4.1)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37 (18.3)	73 (36.1)	58 (28.7)	26 (12.9)	8 (4.0)	202 (79.5)	6.72 (4)	0.152
	비정신지체	13 (25.0)	12 (23.1)	12 (23.1)	12 (23.1)	3 (5.8)	52 (20.5)		
계		50 (19.7)	85 (33.5)	70 (27.6)	38 (15.0)	11 (4.3)	254 (100.0)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경주지역 학부모와 초등부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 미만을 희망하였다.

7)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희망하는 학생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26>과 같이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7명 14.6%, 1명 11.4%, 8~10명과 11명 이상이 각각 1.2%로 나타났다.

<표 IV-26>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교사당 학생수

구 분		1명	2~4명	5~7명	8~10명	11명 이상	계	χ^2 (df)	p
지역	서울	8 (7.3)	80 (72.7)	21 (19.1)	-	1 (0.9)	110 (43.3)	9.71 (8)	0.286
	대구	11 (15.9)	46 (66.7)	9 (13.0)	2 (2.9)	1 (1.4)	69 (27.2)		
	경주	10 (13.3)	56 (74.7)	7 (9.3)	1 (1.3)	1 (1.3)	75 (29.5)		
과정	초등부	13 (18.6)	47 (67.1)	9 (12.9)	-	1 (1.4)	70 (27.6)	11.36 (8)	0.182
	중학부	9 (8.3)	84 (77.8)	14 (13.0)	1 (0.9)	-	108 (42.5)		
	고등부	7 (9.2)	51 (67.1)	14 (18.4)	2 (2.6)	2 (2.6)	76 (29.9)		
성별	남	22 (12.2)	129 (71.3)	25 (13.8)	2 (1.1)	3 (1.7)	181 (71.3)	1.80 (4)	0.772
	여	7 (9.6)	53 (72.6)	12 (16.4)	1 (1.4)	-	73 (28.7)		
장애 유형	정신지체	22 (10.9)	149 (73.8)	28 (13.9)	2 (1.0)	1 (0.5)	202 (79.5)	5.43 (4)	0.246
	비정신지체	7 (13.5)	33 (63.5)	9 (17.3)	1 (1.9)	2 (3.8)	52 (20.5)		
계		29 (11.4)	182 (71.7)	37 (14.6)	3 (1.2)	3 (1.2)	254 (100.0)		

* p<.05, ** p<.01, *** p<.001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학부모와 경주지역 학부모가 대구지역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을 희망하였고, 대구지역 학부모는 다른 지역 학부모보다 1명을 희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의 과정별로는 자녀가 초등부인 학부모가 중학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1명을 희망하였고, 자녀가 중학부인 학부모는 초등부와 고등부 학부모보다 2~4명을 희망하였으나 과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의 성별로는 자녀가 여자인 학부모가 남자인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5~7명을 희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장애유형별로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을 희망하였고, 자녀가 정신지체가 아닌 학부모는 자녀가 정신지체인 학부모보다 5~7명을 희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모들은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종합적 논의

1)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 실태

첫째, 과외나 학원 수강 및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과외나 학원수강 교육영역으로는 예·체능 교육과 일반 교과교육, 전산교육, 과학교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애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 내용은 생활적응훈련과 언어지도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자녀들이 1군데나 2군데의 치료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외나 학원수강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부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선생님, 본인, 기타, 동료학생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

첫째,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면 계속 지출할 의향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그다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의향은 적었으며,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적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불안감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교육비 지출 실태

첫째, 학부모들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관련 학원비의 월 평균 지출규모는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부분이 제일 많았다.

둘째, 치료교육비로는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가계 총소득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 가장 많았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 지출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사교육의 효과

첫째, 학부모들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 상태 개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사교육이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5)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첫째,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응답에서는 자녀가 교육받기를 원하는 영역으로 치료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예·체능교육과 일반 교과교육, 전산교육 순으로 나타나 치료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둘째,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로는 담임교사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교과목당 교육비로는 1~2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교사당 지도 인원은 2~4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희망하는 교사로 외부 치료교육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교육비는 1~2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교사당 지도 학생수는 2~4명을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지역과 과정,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과 장애 상태 개선을 위하여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절감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항목별 교육비의 지출 정도를 분석한다.

둘째,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 및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받는 일반 교과교육과 예·체능, 과학, 치료교육 등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특수학교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정진학교), 대구(남양학교), 경주(경희학교)의 3개 특수학교 3과정(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분석대상으로 적합하고 일관성 있게 응답한 254부를 중심으로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분석을 하였으며, 특수학교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과정별로는 중학부,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과외나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으로는 예·체능교육과 일반 교과교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치료교육의 내용으로는 생활적응훈련과 언어지도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1군데나 2군데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기관의 이용에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면 계속 지출할 의향이 적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그다지 세우지 않았으며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도 부업을 할 계획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가정과의 사교육비 비교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불안감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부모들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습관련 및 치료교육비의 월평균 지출 규모는 10만원 미만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교육비가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형편에 비추어 사교육비 지출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해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부모들은 사교육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와 장애상태 개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사교육의 장래 진로 결정 영향이나 사교

육비 증가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 운영 희망 교육영역에서는 치료교육과 예·체능교육을 통한 장애상태 개선과 건전한 신체발달, 예술적 기능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학습관련 지도교사로는 담임교사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학교와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관련 교육비로는 교과목당 1~2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희망 교사당 학생수는 2~4명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희망하는 교사로는 외부 치료교육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외부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의 다양한 치료경험과 보다 높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교육비로 1~2만원 미만을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치료교육을 위한 지도 학생수는 2~4명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들도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기관 이용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내용도 예·체능, 일반 교과교육, 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교육기관으로 유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 상설 프로그램의 운영시 희망 교육영역으로 치료교육과 예·체능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치료교육과 예·체능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희망 지도교사로 담임교사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은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친밀감, 의사소통, 학생에 대한 이해 및 학습 수행 능력 파악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 지도교사는 담임교사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학습관련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교과목당 희망 교육비로는 학부모들이 1~2만원 미만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교육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시 교사당 학생수가 2~4명이 적당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특수학교의 학습 지도 특성인 개별화 교육의 측면을 감안할 때 방과 후 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면에서 장애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3명 내외의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부모들은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학생들을 지도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므로,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 전문

가가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치료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부모들은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로 1만원~2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교육비를 통한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방과 후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학부모들은 교사당 학생수로 2~4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장애상태 개선 및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소의 학급 편성과 개별화에 의한 치료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은배·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경희학교, 학교교육계획, 2004.
- 김영철·공은배, 교육경제와 재정, 서울: 교학사, 1988.
- 공은배·이윤식, 교육투자규모와 적정단위교육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 외, 교육투자 규모와 적정단위 교육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2.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김홍주 외 2인,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1981.
- 윤정일, 교육재정학, 서울: 세영사, 1993.
- 윤준원, 「부산시내 특수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 이기호, 「과외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춘희,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임혜경,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이태영, 최신 특수교육원리, 대구: 한사대학 특수교육연구소, 1980.

정봉도, 「특수교육의 적정단위교육비 추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1986.

정진경, *교육경영의 이해*, 서울: 문음사, 1987.

주영랑,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최중옥 외, *특수아동의 이해와 지도: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0.

최혜영, 「사설학원의 사교육비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요람*, 2002.

Becher, G. S.,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Benson, C. S., *The Economics of Public Educatio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8.

Rossmiller, R. A. et al., *Educational Programs for Exceptional Childre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Profile of Private Course Expenses In Special School and How to Save Them

Oh, Sea-Kyu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Tae-Jong Ph. D

For better academic achievement of disabled students with diverse handicap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disable condition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profile of private course expenses their parents spend at home, so that it may seek any way to save the expenses.

For the analysis about actual profile of private course expenses in special school, sheets of a formulat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parents of students in three courses -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 - around three(3) special schools, such as Jungjin School(Seoul), Namyang School(Daegu) and Kyunghee

School(Gyeongju). After this survey,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with chi-square(χ^2) test, t-test and one-way ANOVA to determine any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 results of survey and analysis herein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most of them had the follow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oul, middle school course and mentally retardation.

Secondly, most of parents ever relied on extracurricular or refresher courses and therapeutic educational institution. Most of these extracurricular or refresher courses consisted of artistic and physical education, as well as general curriculum. In view of therapeutic education, most of parents relied on daily living skill training and linguistic instruction for their children, most of which attended one or two extracurricular or refresher classes and therapeutic educational institutions. Moreover, their parents had more influence on the use of such educational means than anyone else.

Thirdly, as private course expenses became gradually increased, parents had a tendency to spending less money in private course courses. Most of parents tended to specify certain amount of private course expenses in advance and rarely plan any other potential expenses. Even though private course expenses would lay more

burdens on livelihood, many parents had little intention to do side job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st parents didn't feel daunted or anxious so much even in comparison with private expenses spent at other homes.

Fourthly, with regard to monthly domestic income on average, most of parents earned ₩1~2 million (Korean won) every month, and spent ₩100,000 or less on average in learning and therapeutic education every month. In addition, most of parents also answered that private course expenses comprised 10% or less of total domestic income. In view of economic circumstances at home, many parents pointed out that they often spent insufficient money in private course expenses. Compared to students at other homes, most parents recognized that they spent relatively less money on average in private course education every month.

Fifthly, most parents didn't feel satisfied with educational effects of private course and therapeutic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disable conditions. Besides, they thought that future orientation in private courses or more private course expenses didn't have much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Sixthly, in the educational sphere that needs the operation of intramural permanent programs after school, many parents were remarkably interested in improving disable conditions, balancing

physical development and enhancing artistic skills through therapeutic and artistic/physical education. Moreover, they had more preference for class teacher as instructor relevant to learning than anyone else, which seems to imply that closer association and better familiarity with school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With regard to school expenses related to learning, many respondents preferred to spend ₩10,000~20,000 or less per subject, and they regarded 2~4 students per desired class teacher as reasonable.

And upon the operation of therapeutic education program after school, most respondents preferred the schoolteachers who are qualified for external therapeutic education to anyone else. It means that parents of students lay more stress on various therapeutic experiences and high specialty of persons who are qualified for external therapeutic education. And many respondents considered ₩10,000~20,000 or less as reasonable expenses of therapeutic education, and preferred 2~4 students under instruction for therapeutic education to any other cas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can give several suggestions to save private course expenses in special school as follows:

First, even handicapped students under special education showed relatively high ratio of using private refresher courses such as

extracurricular or refresher courses and therapeutic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ir private courses took various forms such as artistic and physical education, general curriculum and therapeutic education.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prepare definite solutions that may lead and execute private course expenses out of parents' own pocket into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solution, it is necessary that intramural permanent programs should be run after school so as to save private course expenses assumed by parents.

Secondly, upon the operation of intramural permanent programs after school, our parents preferred therapeutic education and artistic or physical education as their desired educational sphere to anything else. Thus, it is essential that therapeutic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of artistic or physical programs should be planned and executed in a good accordance with these educational needs of parents who have handicapped children.

Thirdly, with regard to favorite instructors in extracurricular learning-related programs after school, most respondents preferred class teacher to anyone else. In view of class teacher's role in school, it can be estimated that our parents valued the roles of class teachers who hav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 students, familiarity,

communication, comprehension about students and identification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this regard, it is advisable that class teachers should be allocated as instructor for running the extracurricular learning-related programs after school.

Fourthly, most parents considered ₩10,000~20,000 or less as the most appropriate amount as favorable school expenses per subject in extracurricular learning-related program after schoo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corresponding budget for educational expenses in full regard of their economic aspects upon running extracurricular programs.

Fifthly, many parents considered 2~4 students per schoolteacher as appropriate upon running extracurricular learning-related programs after school. In view of individualized instruction as a characteristic of instruction available in special schools, it is necessary that each class comprising 3 students or so should be arranged and operated in good regar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andicapped students upon the operation of extracurricular learning-related programs after school.

Sixthly, most parents preferred that the qualified person for external therapeutic education instructs their children in terms of operating extracurricular therapeutic education program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otivate more external professionals with various experiences and expertise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activities for

handicapped students upon planning such therapeutic education programs after school, so that they may meet the expectation of parents for therapeutic education.

Seventhly, most parents preferred ₩10,000~20,000 or less as educational expenses for therapeutic program after school. Accordingly, it is requisite that extracurricular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realized after school at the reasonable expenses of therapeutic education.

Finally, most parents preferred 2~4 students per schoolteacher upon running therapeutic education programs after school. To improve the disable conditions of handicapped students and maximize the resulting educational effects, it is favorable that individualized therapeutic education should be applied to classes arranged with minimum number of students as possible.

[부 록]

특수학교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절감방안에 관한 설문지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구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장애 학생을 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의 여러 형태와 종류를 알아보고 사교육비의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지 내용에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 내용은 학문적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 결과로 나타난 내용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4월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오 세 경 올림

1. 지역·학교명: ① 서울 정진학교() ② 대구 남양학교()
③ 경주 경희학교()

2. 과정별: ① 초등부() ② 중학부() ③ 고등부()

3. 성 별: ① 남() ② 여()

4. 장애유형: ① 정신지체() ② 지체부자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언어)장애() ⑤ 정서장애() ⑥ 기타()
5. 자녀의 학습 또는 장애상태 개선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 및 사설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교육영역에 대해 모두 V를 해 주십시오.
 ① 일반 교과교육() ② 예·체능교육()
 ③ 전산교육() ④ 과학교육()
 ⑤ 기 타()
7.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개선 훈련이나 치료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① 보행훈련() ② 점자지도()
 ③ 물리치료() ④ 언어지도()
 ⑤ 생활적응훈련() ⑥ 기타()
8. 과외나 학원 및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모두 합하여 몇 군 데나 됩니까?
 ① 1군데() ② 2군데()
 ③ 3군데() ④ 4군데 이상()
9. 자녀가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① 부모님() ② 본인()
 ③ 동료학생() ④ 선생님()
 ⑤ 기타()

10. 자녀의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및 치료교육비)가 점점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가계의 지출을 계획할 때 사교육비로 미리 일정액을 정해놓고 나머지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2.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3.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은 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 및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4.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15. 자녀의 학습관련 학원비(일반교과, 예·체능, 전산, 과학 등)의 월평균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⑤ 40-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
16. 자녀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교육비(물리치료, 언어지도, 점자지도 등)의 월평균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미만()
 ③ 20-30만원 미만() ④ 30-40만원 미만()
 ⑤ 40-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
17. 자녀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총액은 가계 총소득의 몇 %나 됩니까?
-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 이상()
18. 현재 지출하는 자녀의 사교육비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는 다른 가정의 학생에 비하여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의 교육적 효과나 장애상태 개선 효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21. 과외나 학원수강 및 치료교육이 학생의 장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써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녀가 어떤 영역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일반 교과교육() ② 예·체능교육()
 ③ 전산교육() ④ 과학교육()
 ⑤ 치료교육() ⑥ 기타()
24.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써 학습관련 프로그램(일반교과, 예·체능, 전산, 과학 등)을 운영한다면 누가 지도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담임교사() ② 외부인사(학원강사 등)()
 ③ 비담임교사() ④ 자원봉사자()
 ⑤ 기타()

